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과 장 김정균 사무관 송석민	042-481-5258 042-481-5174
	2016년 12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27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우수특허 창출과 사업화의 열쇠, 발명인터뷰 제도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방안을 담은 성과사례집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을 소개하는 ‘발명인터뷰 및 공공 지식재산(IP) 활용 성과사례집’(이하 ‘성과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발명인터뷰 사업은 출원 전에 변리사 등 전문가 그룹이 연구자의 발명내용을 평가하여 우수한 발명만을 출원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공공 IP 활용 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활용 전략 제시 및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공공연구기관 중 우수 성과를 창출한 10개 기관을 선별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담당자 및 연구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성과사례집을 제작하였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성과사례집은 ▲대학·공공(연)의 발명인터뷰 제도 내재화 사례, ▲TLO와 연구자간의 소통 및 신뢰 구축 사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성공사례, ▲연구자의 발명인터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발명인터뷰 제도 도입부터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로, 국민대는 ‘찾아가는 발명인터뷰’ 도입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프로세스가 기존 연구자 주도에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주도로 변화됨으로써 도움을 받은 교수·연구자가 먼저 협업을 제안할 정도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위상이 올라갔다. 아주대는 예비 수요기업을 발명 인터뷰 과정에 참여시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요에 기반한 R&D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관련 산업 및 시장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대는 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기술의 출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사업화 전문가의 조언과 컨설팅을 통해 과거에는 특허를 단순히 연구실적용으로 여기던 연구자들이 이제는 특허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에 발간한 발명인터뷰 성과사례집을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R&D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염두해 둔 R&D가 보다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성과사례집은 전국 대학·공공연구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sta.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붙임1>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활용 사업 성과사례집 표지

<붙임2>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활용 사업 홍보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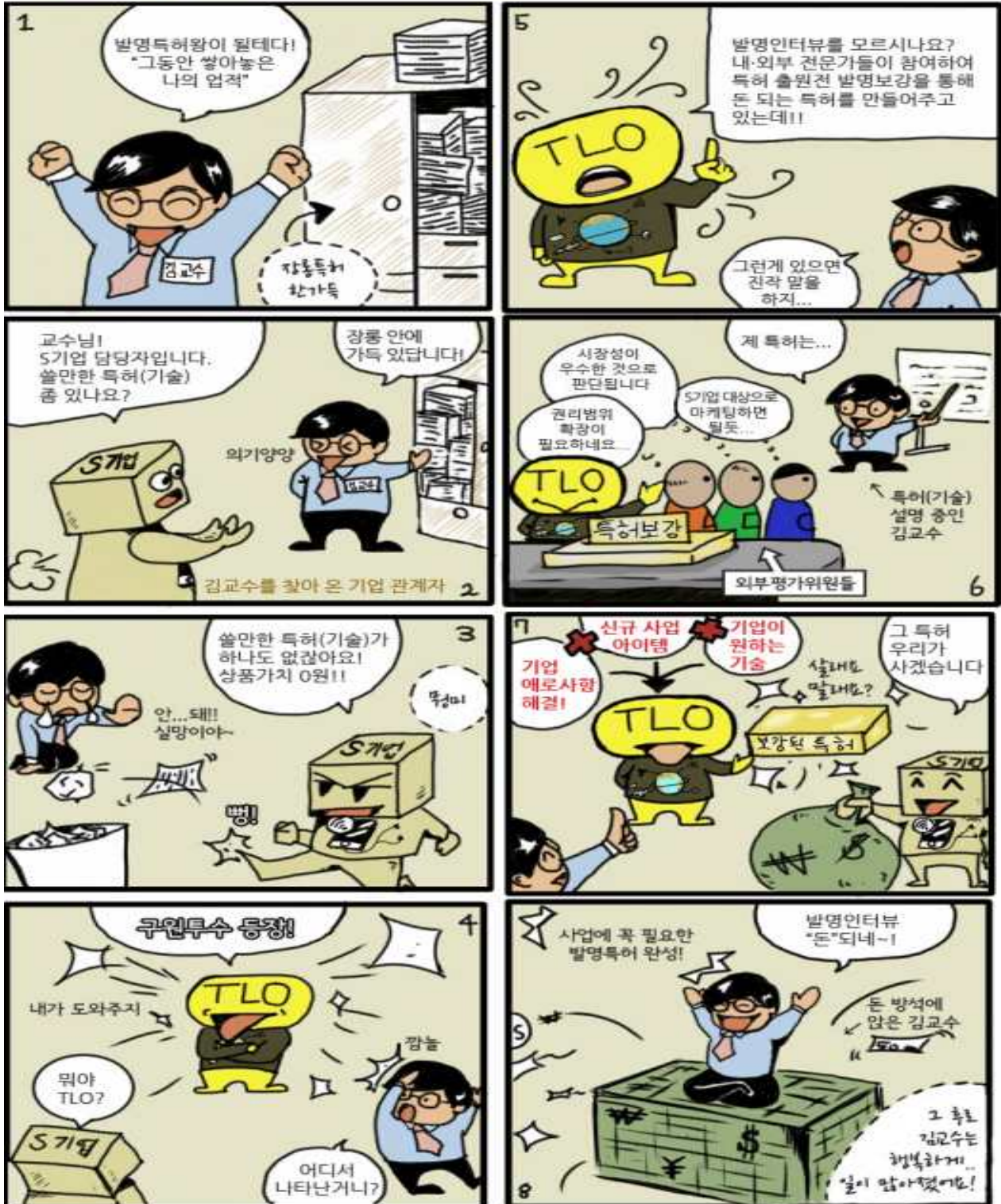
<붙임3>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활용 사업 개요

::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 자원
성과사례집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그린다



'발명인터뷰' 알고 있나요?



붙임3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출원 전 발명인터뷰제(발명심사제도) 운영으로 강한 지식재산 창출
- 산업계 활용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



□ 사업 내용

○ 발명인터뷰 지원 내용

- 출원 전의 발명신고 건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 발명을 보장하여 가치를 증대하고, 우수 발명을 선별하여 유망한 기술 위주로 특허권 확보와 기술이전·사업화 유도
 - * 발명등급평가: S급(약5%, 원천·표준기술, 해외출원 최우선 지원), A급(약25%, 기술이전 기대기술, 해외출원 지원), B·C급(약65%, 국내출원), D급(약5%, 보류 등)

< 사업 효과 >

대학·공공(연)의 유망한 연구성과물이 조기에 발굴되어 사장(미활용, 권리 포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수단으로 평가

- (발명 평가)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특허전략수립·기술이전·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특허의 양산 방지로 예산 절감
- (발명 보강) 출원 전 기술·권리를 보강할 수 있어 강한 특허 창출 효과
- (역량 강화) 평가·보강 과정의 컨설팅을 통해 연구자의 지재권 역량 강화

○ 공공 IP 활용 지원 내용

- 발굴된 유망기술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분석을 토대로 활용 전략 제시 및 기술 마케팅* 지원
 - * 기술마케팅보고서(Sale Material Kit) 작성,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협상·계약 등